

술숨에 고이 잠든 학도병들...파도는 말한다 '그날 밤 핏빛 함성'



영덕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현재의 문산호는 실물 모형으로 복원한 것이다. 길이 90m, 폭 30m, 높이 26m, 의 3천톤급으로 총 5층 규모다.

영덕의 푸른 길, 이야기를 따라 걷다

(캘리그래피·박은서팀)

1. 한반도의 운명을 바꾼 역사의 현장, 장사

영덕의 가장 남쪽마을은 부경2리 지경(地境), 땅의 경계라는 뜻이다. 지경전을 건너기도 전에 저 멀리서부터 잡계발을 뻗어 들어올린 커다란 대게가 보인다. 영덕이 대게의 고장임을 알리는 대게누리공원이자. 여기서부터 북쪽 끝 고래불까지 이어지는 66.5km의 길을 '영덕 블루로드'라 한다. 부산에서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해파랑길의 전신이다. 블루로드는 크게 4개 코스가 있고, 조금 짧은 거리의 8개 코스로 이어져 있다. 대게공원 앞은 전경과 앞에 블루로드의 출발점을 알리는 파란 동그라미가 등실하다. 이 길은 '쪽빛 파도의 길'이고 '시작의 해변'이다.

◆한반도의 운명 바꾼 역사의 현장, 장사
부경리는 작은 마을이다. 모래밭과 동그마한 대하와 갯가의 텃밭도 모두 조그맣다. 이 작은 마을을 갈아서 대하로부터 장사해수욕장이 시작된다. 장사(長沙)는 긴 모래, 예부터 지역에서는 진흙 또는 인분이라 불렀다. 그 긴 모래밭 남쪽자락에 커다란 배 한 척이 떠있다. 배의 이름은 문산호, 원래 이름은 'LST-120'이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대령양에서 활약한 미해군의 전차상륙함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1947년 2월 이 배를 사들여 '문산'이라 명명했다. 이후 문산호는 교룡부 산하에서 석탄 등을 운송하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대한민국 해군에 동원되어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문산호가 장사 해안에 온 것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14일 새벽 5시다. 문산호에는 유격대원 772명과 지원요원 56명 등이 탑승해 있었다. 대대장은 이명흙, 부대 이름은 육본직할 독립 제1유격대대, 일명 명(明)부대다. 목적지는 이곳 장사해안이고, 이들의 임무는 국도 제7호선을 봉쇄하여 북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후방을 교란, 적을 퇴치하는 것이었다. 바로 '작전명 174, 장사상륙작전'이다. 유격대원 772명은 대부분 14~17세의 어린 학생들이었다. 훈련받은 기간은 2주, 출항 때 보급된 식량은 건빵 한 봉지와 미숫가루 세 봉지였다. 전날 대령 케자(Kezia)가 일본 규슈 지방을 직격하고 동해상으로 빠져 나간 뒤 여서 바다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 안개가 끼었고, 파도는 높았다. 정확한 상륙지점을 분간하기도, 해안에 접근하기도 어려웠다. 문산호는 접근을 시도했지만 높은 파도에 맞아 기울어지면서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

그때 장사리 인근 고지에 위치한 북한군 방어부대가 문산호를 먼저 포착하고 공격을 시작했다. 어둠속에서 높은 파도를 뚫고 해안으로 상륙하는 유격대원들에게 포탄과 총탄이

날아왔다. 그들은 장사해안의 모래 구덩이에 몸을 묻고 육지 어딘가로부터 쏟아져 날아오는 총알과 포탄을 피해 항전했다. 원래 작전 계획은 3일이었다. 보급수량이 적었던 것은 그 때문이다. 그것조차 배가 난파되면서 먹을 수 없게 되었고, 이후 학도병들은 해안가 바에서 캔 고구마와 감자로 허기를 달래며 전투를 계속했다. 무전기는 상륙과정에서 총탄에 맞아 파손됐고, 무전병은 이미 전사한 상태였다. 문산호 대원들은 6일간이나 식량보급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군의 보급로 및 퇴각로를 차단하는 등 항전을 지켰다.

9월19일, 아군을 구출하기 위해 수송선 조지워싱턴호 장사해안에 도착했다. 탈출을 시도하던 많은 학도병들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희생당했고 적의 포탄이 함선에 집중되자 조지워싱턴호는 밧줄을 끊고 회항했다. 미처 승선하지 못한 유격대원 39명은 끝까지 저항하다 전사하거나 포로가 됐다. 그리고 '작전명 174, 장사상륙작전'은 139명 사망, 92명 부상, 행방불명 다수라는 집계를 남긴 채 마무리됐다. 배는 바다 속에 묻혔고 장사상륙작전은 군사기밀로 묻혔다.

장사상륙작전은 인천상륙작전 전 북한군의 주의를 흐트리고, 낙동강 방어선 형상강 전투에서 북한군의 후방을 교란시켜 한국군의 북진을 가능케 한 작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맥아더 장군이 '772 유격동지회' 앞으로 보낸 편지가 전해진다. 그가 사망하기 4년 전인 1960년의 편지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인천상륙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귀하의 동지들이 수행한 전투는 혁혁한 것이었으며, 동시에 최고의 찬사를 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772유격대 동지들이 보여준 용맹과 희생은 한국 유일의 해상 호국 전사관이다. 짧은 사수 위로 길게 놓인 교각이 문산호의 랩트도어에 뻗어 있다. 저 검은 문을 바라보면, 그날 새벽 어둠 아래 파도와 총탄을 뚫고 질주해 오는 학도병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1950년 9월의 문산호는 지금도 장사 앞바다에 가라앉아 있다.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현재의 문산호는 실물모형으로 복원한 것이다. 길이 90m, 폭 30m, 높이 26m의 3천톤급으로 총 5층 규모다. 그중 3개 층은 장사상륙작전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전시관으로 쓰이고 있다. 학도병들의 희생과 문산호의 역사적 의미, 그리고 한국전쟁의 교훈을 전하는 전국 유일의 해상 호국 전시관이다. 짧은 사수 위로 길게 놓인 교각이 문산호의 랩트도어에 뻗어 있다. 저 검은 문을 바라보면, 그날 새벽 어둠 아래 파도와 총탄을 뚫고 질주해 오는 학도병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1950년 9월의 문산호는 지금도 장사 앞바다에 가라앉아 있다.



영덕 장사해수욕장. '시작의 해변'은 문산호와 장사해수욕장을 거쳐 남포해수욕장까지 8.3km 코스다. 영덕군은 이 길을 '현재의 평화'를 마추는 코스'라고 설명해 두었다.

한국전쟁 방향 튼 장사상륙작전 유격대원 대부분 14~17세 소년 772명 중 231명 사상·다수 행방
실물크기의 모형 복원한 문산호 전국 유일의 해상 호국 전시관

부흥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길 너비 좁지만 서핑에 좋은 해변

원칙리 화강암은 세계지질공원

영덕판 봉이 김선달의 무덤도



영덕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영덕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모형.



문산호를 바라보는 장사해안 일대는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으로 조성돼 있다. 위령탑과 전적비, 학도병들의 이름을 새긴 메모리얼 벽 등이 있고 모래밭에는 당시 학도병들의 모습을 재현한 동상이 있다.

문산호를 바라보는 장사해안 일대는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으로 조성돼 있다. 위령탑과 전적비, 학도병들의 이름을 새긴 메모리얼 벽 등이 있고 모래밭에는 당시 학도병들의 모습을 재현한 동상이 있다. 이제 막 상륙한 대원들이 적과 싸우는 모습이다. 그들의 발 아래 '036'으로 시작되는 수많은 숫자들이 새겨져 있다. 군번이다. 학도병들에게 군번이 내려진 것은 작전이 끝난 뒤인 10월 5일 경이다.

장사리의 유격대원들은 작전 당시 군번 없는 민간인 신분이었었다. 술숨 그늘 속에 학도병들을 가리는 공동 무덤이 고요히 자리한다. '772 유격동지회'는 1980년부터 매년 9월14일 이곳 장사해안에서 전우들을 위한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고 한다. 술 그림자가 눈부신 모래밭을 향해 맑게 누웠다. 술숨에는 캠퍼스들이 가득하고 삼삼오오 바다를 즐기는 젊은이들은 빛 아래 찬란하다.

◆평화를 마추는 길

장사해수욕장은 부흥해수욕장으로 이어진다. 너비가 좁지만 서핑에 좋은 파도를 가진 해변이다. 부흥전 위로 새롭게 놓인 푸른 다리를 건너다 뒤돌아본다. 초승달 같은 장사해안과 문산호가 선명하다. 부흥리 마을은 해안 경사지에 집들이 차곡차곡 들어서 있다. 그래서 조용히 모두 발돋움해 나를 지켜보는 듯하다. 따뜻한 안전을 온 몸에 두르고 이 소박하고 아가자기한 마을을 지난다.

부흥마을에서 원칙리로 넘어가는 암석해안 일대에서 '원칙리 화강암' 안내판을 만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화강암은 중생대나 신생대에 형성된 것이 많은데, 원칙리 해안의 화강암은 약 2.57억년전인 고생대 페름기에 만들어진 것이라 한다. 지난날 우리나라 동해안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됐다. 영덕에는 7개의 명소가 있는데 '원칙리 화강암'은 그 중 하나다.

해변 오솔길 지나 도로변 데크길에 오른다. 이제 원칙리다. 마을 가운데 갯빛 가위를 이고 있는 동산당을 지나 길보다 바다에 더 가까운 집들의 푸른 지붕을 내려다보며 잠시 마을 안 좁고 예쁜 길을 걷는다. 약수터와 작은 텃밭 지나 다시 도로변 데크길을 따라며 '천하장사 방학중 이야기'를 듣는다. 그는 영덕 하리리 출신으로 봉이 김선달 같은 인물이었다고 한다. 평생 배수를 살았다 하니 인물은 인물들. 그의 묘가 원칙리 지부삼골 바다가 보이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

계속되는 데크길에서 조망이 트이는 곳이면 어김없이 푸른 바다가 펼쳐진다. 그 푸른 바다에 빨간 등대와 하얀 등대가 앞서서나 뒤서거나 내려다보이던 구계항이다. 거북마을을 구계항 방파제는 수심이 깊고 망상어, 항공치, 돛 등 어종이 풍부해 사할 낚시꾼들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 한다. 다시 도로변 데크길 따라 약 1km 전진하면 모래 고운 남포해수욕장이다. '쪽빛 파도의 길'은 강구까지 이어진다. '시작의 해변'은 이곳 남포해수욕장까지다. 영덕군은 이 길을 '현재의 평화를 마추는 코스'라고 설명해 두었다. 그것은 학도병의 희생에 대한 애도 후에 찾아오는 소박한 일상의 평화에 감응하는 길이다.

글·류혜숙 영남일보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연구위원
사진·박관영기자 zone5@yeongnam.com

<공동 기획>

